

프랑스 油價連動制度에 대한 고찰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보통)와 경유(차량용·난방용)에 대해 精油社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油價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編輯者註)

I. 連動制度의 도입목적

- 국내 유가를 국제시장가격(로테르담 現物시세 및 EC 국내가격)에 연동하여 가격결정의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 한다.
- 국제가격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하여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소비자와 정유업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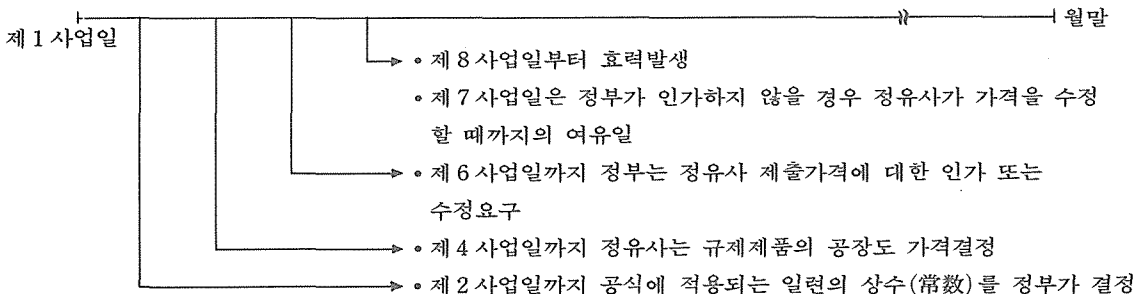
II. 대상油種

- 휘발유(고급·보통), 輕油(차량용, 난방용)
- 그의 유종은 종전제도를 그대로 적용

III. 연동제도의 내용

1. 개 요

- 매월 국내 精油業의 단위당 완제품 평균 생산원가(P)와 로테르담 現物시장 및 프랑스를 제외한 EC 9개국의 복합판매편가(V)를 공식에 의거 산정한 후 P와 V를 비교하여 규제제품의 공장도 상한가격을 결정
- 각 정유사는 규제제품의 가격공식에 의해 산정된 상한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 당국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비용(제세공과·지역별 공급비용·의무저장비·유통마진·부가가치세)을 가산하여 소비자가격을 결정
- 월별가격 조정 과정



2. 국내精油業의 세전생산 원가(P) 산정

- 원유FOB· 원유수송비 및 정제비로 구분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P = \frac{CF}{C} + \frac{Fr}{C} + CR$$

CF : 원유 톤당 FOB
CR : 제품 톤당 정제비
Fr : 원유 톤당 해상수송비
C : 정유사 연료 감모 환산계수

(1) 원유 FOB (CF)

$$CF = B \times \$ \times d$$

B : 원유도입단가(최근 3개월간 원유도입 Mix× 기준월 현재 공시가)

\$: 기준월의 산술평균환율(franc/\$)

d : 톤당 배럴 환산치

원유FOB(CF)는 최근 3개월간 유종별 원유도입 Mix에 기준월 15일 현재 유종별 공시가격(PIW)을 적용하여 달러화표시 원유 FOB를 산정한다.

(2) 원유수송비 (Fr)

$$Fr = d + (B \times B \times \$)$$

d : Annual review에 게재되는 고정수치(F/ton)

B : Annual review에 게재되는 고정계수

B·\$: 상기 정의와 동일

원유수송비(Fr)는 프랑스 국적선 적취의무(수입량의 2/3)에 따른 법정고정비용에 원유가격의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변동비율을 더하여 산정한다.

(3) 정제비 (CR)

$$CR = a \frac{SH}{SHo} + b \frac{PG}{PGo} + c \frac{Ko}{K} + 50(1 + M)$$

a, b, c는 각각 총정제비에서 노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및 장기금융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고정단가임.

SH : 기준월에 발표되는 가장 최근 분기의 시간당 임금지수

PG : 기준월 전 12개월 동안 정유사 전제품의 순생산량

SHo : SH와 PG에 대해 1981년 7월 수준의 기준치

K : K의 기준치로 1981년 순생산량

M : 전체정제비의 %로 표시되는 산업고정 이익률

정제비(CR)은 노무비·재료비·감가상각비·장기금융비의 고정단가에 임금지수 및 제품생산지수 등의 변동요인을 감안한 후 정유사 마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정유사연료·減耗 환산계수 (C)

정유사연료·감모 환산계수(C)는 국내 정유사의 원유투입과 제품생산 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3. 유럽시장의 복합판매가격(V) 산정공식

판매복합단가는 유럽시장에서의 각 제품별 기준가격(Pi)에 전년도 국내의 精油社 순생산량(Qi)를 적용하여 산출한 공식은 $V = \sum \frac{PiQi}{Q}$ 이다.

[휘발유(고급·보통), 輕油(차량용·난방용), 중질연료유, 나프타, 제트油 등에 적용]

(1) 기준가격

기준가격(Pi)는 각 제품(휘발유·경유·중질연료유·나프타·제트油)의 로테르담 현물가격(Pi)과 프랑스 제의 EEC평균국내가격(Pzi)을 50%씩 가중, 산출.

$$Pi = Pj (Pi + Pzi) + S$$

* S는 marketing differential로 규제제품(고급·보통휘발유·차량용·난방용 경유)에만 적용. 그의 중질연료유(heavy fuel oil)·나프타·제트油는 제외.

① 로테르담 현물가격(Pi)

관련제품의 Pi는 Platt's Oilgram지에 발표되는 매일매일의 현물가격 평균을 적용하되, 월별 평균 현물가격은 가격표가 발행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질연료유는 고유황 90%와 저유황 10%를 가중한다.

② EC 국내가격(Pzi)

EC 국내가격의 산정은 제품별로 기준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규제제품(휘발유·경유)과 고유황연료유는 프랑스를 제외한 EC 국가 평균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적용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EC의 주간「Oil Bulletin」자료를 이용하며 유통비용은 제품별 전통적인 마진 수준에 OECD의 서비스가격 지수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또한 저유황 연료유, 나프타, 제트유는 프랑스에서 유효한 공장도 가격을 적용하며, 이는 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산정한다.

이때 경유가격은 차량용과 난방용이 각각 1/3, 2/3의 비율로 가중산출하며, 중질연료유 가격은 고유황 90%, 저유황 10%의 비율로 가중 산출한다.

* 유통비용차감

5개 제품(휘발유, 경유, 중질연료유, 나프타, 제트油)의 P_{2i}는 소비자가격에서 전통적인 마진(conventional margin)을 차감함으로써 산정된다.

$$MC = Mco \times \frac{PS}{PSo}$$

Mco : 전통적 마진의 기본 수준

PS : 유럽국가들의 서비스가격의 월평균 지수

PSo : PS지수 기준으로 가격공식이 첫번째 적용된 기간의 수치

(2) 순생산량(Qi)

전년도 정유사 순생산량(임가공 제외)

* 단 i는 휘발유(고급·보통), 경유(차량용·난방용) 등 규제제품과 중질연료유, 나프타, 제트油를 포함

4. 규제제품의 세전공장도 상한가격 (PM_j) 결정방식

규제제품에 대한 공장도 제품가격 상한선은 기준월의 P와 V의 상대적 비교로 부터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P \times 0.92 \quad V \quad P \times 1.08 \quad PM_j = P_j$

즉 유럽시장의 판매가격 V가 국내생산원가 C의 ± 8% 이내이면 규제제품의 공장도 상한가격은 유럽시장가 수준에서 결정.

② $P \times 0.92 \quad V$ 일 경우 $PM_j = P_j \times 0.92P/V$

유럽시장가가 국내생산원가 대비 92%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규제제품의 공장도 상한가격은 국내생산원가의 92%를 반영

③ $1.08P \quad V$ 일 경우 : $PM_j = P_i \times 1.08P/V$

유럽시장가가 국내생산원가대비 8% 이상 상승할 경우 규제제품의 공장도 상한가격은 국내생산원가에 8%를 추가한 선에서 결정. *

(雙龍精油·주간석유에너지정보)

□ 消費國動向 □

日本 주유소의 합병, 전업, 폐업 추진

난매전으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日本 자원에너지庁은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89년말까지 ① 가솔린·스탠드업의 합병, 전업, 폐업의 추진 ②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다각화 추진 ③ 경영근대화를 위한 정보관련 설비 등의 도입 등이 골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8월경에 구체적 구조개선안을 通産省에 제시한다.

이 구조개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에너지庁은 중소기업사업단 등으로 부터 총 2,000억엔의 용자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는 약 5만 9천개소, 업자는 3만 5천명이다. 업자들의 대부분은 석유원매사로 부터의 구입가격을 무시한 채 할인경쟁을 제

속함으로써 전체업자의 50%가 적자경영에 쫓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에너지庁은 앞으로 예상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토록 주유소 구조개선안을 작성한 것이다.

현재 주유소 전체의 약 4할이 반경 500m 이내에 5개소 이상 「파잉밀집」되어 있는 정도. 업계 일부에서는 주유소수가 현재의 1/3선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에서는 앞으로 석유원매사에게도 호소하여 주유소 합병, 전업, 폐업 등 집약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사업다각화 문제는, 자동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 주유소를 빌딩에 설치하여 맨션사업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日本經濟新聞 5月 21日字)